

시텐노지왓소와 在日코리안文化의 役割 研究

俞起濬*

(e-mail : kjyou@kongju.ac.kr)

目 次

1. 머리말
 2. 시텐노지왓소의 유래
 3. 시텐노지왓소의 개최 현황
 4. 시텐노지왓소의 운영 전략
 5. 시텐노지왓소에 나타나는 在日코리안文化의 役割
 6. 맺음말
-
-

1. 머리말

일본 오사카에는 일본 여러 지역 중 가장 많은 14만여 명의 재일한국인이 살고 있다.¹⁾ 1980년대, 재오사카코리안 문화현상의 특질은 민족마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가 계기가 되어 원코리아페스티벌(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민족마츠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민족이 테마로 표방되고 있고, 특정 종교적 전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소수 개인의 발의에 의해 시작되고 불란티아에 의하여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마당(マダン) 이라

* 公州大学校 人文社会科学大学 観光学部 観光経営学専攻, 教授

1) 2005년 일본의 재일동포는 총598,687명으로 이중 오사카에는 일본 전체의 23.84% 인 142,712명이 거주하고 있다. (재일동포지역별 분포사항, <http://www.mindan.org>)

는 이름이 붙여진 마츠리가 한신(阪神)을 중심으로 탄생되었다.²⁾

이렇게 민족을 테마로 하는 마츠리가 탄생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재일코리안의 생활문화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일본의 그것과 균질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일코리안의 민족정체성을 배우고 유지하려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다민족화가 되어가고 있는 일본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³⁾과도 연계가 되리라 생각한다.

민족마츠리 중, 시텐노지왓소는 고대 한반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높은 문화를 지니고 일본에 도래(渡来)한 사실을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기위하여 형형색색의 고대의상을 입고 순행하는 퍼레이드와 도래(渡来)하는 사절단(使節團)을 일본 측 성덕태자 일행이 환영하는 의식을 표현한 오사카의 역사재현형 마츠리이다.

고대 오사카는 나니와노즈(難波津)라 불리는 국제교류의 큰 거점이었고 이러한 고대 국제교류의 모습을 현재에 재현한 시텐노지왓소 마츠리는 1990년에 오사카은행(1993년 関西은행이 됨-재일사회 최대금융기관) 이사장 이희건(李熙建)씨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텐노지왓소의 지원기업인 간사이(関西)은행의 경영과산으로 일시 중단 되었다가 2004년 재오사카일본기업의 지원과 일본인의 참가를 얻어 새로운 오사카의 마츠리로 재생되었다.

재일코리안의 민족마츠리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최근 집단적 차원에서의 재일의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교한신(京阪神)’이라 불리는 일본관서지역 중심의 네 개의 축제를 통하여 분석한 김현선의 연구가 있지만 국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도 재일코리안의 민족마츠리에 대한 연구가 飯田剛司, 片岡千代子, 藤井幸之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⁴⁾ 연구성과는 그리 많지 않

2) 飯田剛司(2006) 「在日コリアンと大阪文化—民族祭りの展開」,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 5号, 関西社会学会 p.45.

3) 총무성은 2006년 3월 다문화공생추진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외국인등록자의 증가와 정주화라는 현실에 대해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행정에서의 다언어서비스, 학습, 교육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 등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http://www.soumu.go.jp>)

4) 김현선(2007), 「재일코리안의 축제와 민족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6호
 飯田剛司(2003),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民族祭り—民族と宗教と社会学』, 世界思想社
 (2006), 「在日コリアンと大阪文化—民族祭りの展開、関西社会学会フォーラム」, 『現代社会学』 5号
 (2007),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ゆくえ—民族祭り視点から」, 芦名定道, 編著, 『多元的世界における寛容と公共性』, 晃洋書房

片岡千代子(2006), 「京都東九条マダンの中心的担い手についての考察」, 『東アジア研究 45』,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藤井幸之助(2006), 「民族祭り、マダンの系譜—見る者と見られる者の関係性、在日朝鮮人の出会いの場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実現へむけて—」,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発表会』 大阪、7月

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민족마즈리의 하나인 시텐노지왓소 마즈리도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초창기부터 일시 중단 이전과 중단 이후 재생되는 변화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시텐노지왓소의 유래와 개최현황 그리고 운영전략과 시텐노지왓소에 나타나는 재일코리안문화의 역할 등에 대하여 고찰하려한다⁵⁾.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민족마즈리로서의 시텐노지왓소의 태동 과정과 규모 그리고 운영전략을 알수 있고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회 속에서 시텐노지왓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마즈리라는 문화현상을 통하여 표출되는 재일코리안 문화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코리안과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사 재현형 축제인 시텐노지왓소 마즈리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역사 재현형 축제의 운영과 기획을 하고 있는 관계자에게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시텐노지왓소의 유래

고대 오사카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로부터 많은 위인들이 도래(渡來)하여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전하는 뜻 깊은 국제 교류가 전개된 곳이다. 한자와 논어를 전한 왕인박사나 불교를 전한 노리사치계 그리고 철기를 전한 천일창과 채화(彩畵) 및 맷돌, 종이, 떡 등의 제조법을 알려준 담징 등 일본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그 현관문이 된 곳이 오사카·나니와노츠(難波津)이며 특히 시텐노지(四天王寺)는 당시의 영빈관적 존재로 고대 국제 교류의 중심적 무대였다.⁶⁾ 이렇게 고대 국제교류의 중심 무대였던 오사카에서 시텐노지왓소가 탄생되었다.

현재의 시텐노지왓소 마즈리는 고중에 의하여 재현된 고대의 의상을 입고 악대가 연주하는 음악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도래한 사절단이 후나단지리(舟夕

5)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자료의 검토와 더불어 2009년 8월 11일에 오사카 한국인 회관 안에 있는 「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을 오사카의 国立民族学博物館의 朝倉敏夫 교수와 오사카경제법과대학의 高正子 연구원과 함께 방문하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2004년에 창간되어 최근까지(2009년 1월) 발간된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 会報誌(연간 3회 발행)와 홍보자료 등을 받았다. 또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의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2009년 11월 1일)에 참관하였으나 우천으로 본제(本祭)는 취소되었다. 그러나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아카데미의 공연이 본 행사장인 나니와노미야야토(難波宮跡)공원 인근의 오사카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려서 참관하였다.

6) <http://www.wasso.net>

ンジリ: 수레모양의 배⁷⁾를 타거나 또는 도보로 “왓소(ワッソ), 왓소(ワッソ)”의 구호를 외치며 오사카 시내에 있는 사적(史蹟) 나니와노미야아토(難波宮跡)공원을 순행한다. 그리고 공원 안에 마련된 특설 스테이지에서 그 시대의 일본의 위인들이 도래해 오는 사절단을 마중 나가는 교류 의식을 거행한다. 즉 시텐노지왓소 마츠리는 이러한 고대의 국제교류를 현재에 재현한 역사의 파노라마라 할 수 있다.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는 1990년에 오사카은행이사장 이희건(李熙建)씨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당시 시텐노지왓소의 기획과 고증을 담당한 上田正昭씨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희건(李熙建) 씨로부터 시텐노지(四天王寺)를 중심으로 고대국제교류와 관련된 마츠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재일(在日)의 제3세, 제4세에게 자랑과 자신을 주고 싶었고 또한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오사카시에서 고대의 선린우호의 사실을 인식시키고 싶다고 하는 뜻이었다. 당시(1980년대 후반) 오사카은행(大阪興銀)은 예금고 1조1천억 엔에, 직원 7-8백 명이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국인으로도 일본인으로도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근심하면서 특히 재일(在日)의 제3세와 제4세는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한다. 즉 축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일본사회에의 동화와 균질화 과정 속에서 재일의 민족정체성의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이 근간에 있었다 할 수 있다.⁸⁾

이렇게 시작된 시텐노지왓소는 은행관계자와 재일(在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사카의 재계와 지식인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시텐노지왓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오사카의 새로운 마츠리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츠리의 준비에 4년 반 정도가 걸렸다. 비용은 26억 엔 정도 이었는데 오사카은행만의 자금이 아니었고 이희건(李熙建)씨 개인의 돈과 이런 저런 기부금 등 이었다. 왓소(ワッソ)는 한국어의 왓다의 의미이고 전하여 어서오세요의 의미도 된다. 일본어의 왓쇼이(ワッソイ)는 왓소와 연관된다는 설도 있다.⁹⁾

시텐노지왓소는 고대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의 선린우호의 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마츠리를 기획한 것으로 ① 가급적 옛 방식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등장인물을 선정 할 것 ② 의상은 옛 모습의 것으로, 후나단지리(舟タンジリ), 가마, 악기 등

7) 고대 사람들이 사용한 배를 재현한 것이다. 나무를 도려내어 만든 <통나무배> 그 위에 구조물을 얹은 <구조조선>과 완전히 개개의 부품으로 짜 올린 <구조선>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 (<http://www.wasso.net>)

8) 김현선(2007), 전개논문, p.464

9) 飯田剛司(2006), 「在日コリアンと大阪文化—民族祭りの展開」、関西社会学会フォーラム, 『現代社会学』5号, p.p 46-49

의 리듬도 고품에 따라 고증할 것 ③ 시텐노지(四天王寺)의 전통에 어울리는 연출을 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한일 고고학자를 포함한 관계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1990년에 탄생되었다.¹⁰⁾ 이후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시텐노지왓소의 지원기업인 간사이(関西)은행의 경영파산으로 일시 중단 되었다가 2004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른다.

3.시텐노지왓소의 개최 현황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의 개최 현황은 2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지원기업인 간사이(関西)은행이 주관이 되고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실행위원회가 주최한 1990년 제1회부터 중단되기 전인 2000년의 제11회까지이고, 제2기는 중단되었던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를 부활시키는 2003년 제12회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1회부터 제11회까지 제1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초창기 기획 때부터 참여한 上田正昭의 연구¹¹⁾를 통하여 대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실제로 부활에 성공하여 현재에 이르는 제2기의 시텐노지왓소에 관한 상황은 주최단체인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에서 발간되는 회보지(會報誌)¹²⁾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3-1. 제1기(1990년- 2000년)

개최일은 제1회 때에는 8월 18일에 전야제를 거행하고 8월 19일에 퍼레이드와 합동제전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국고교야구의 경기 일정과의 겹침과 날씨의 뜨거움으로 인한 의상의 오염이 심각하여 제2회 이후로는 문화의 날인 11월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졌다. 이 개최일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퍼레이드의 참가국은 제2회부터 일한(日韓)·일조(日朝)의 선린우호의 관계에서부터 아시아의 마츠리로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사(隋使) 일행이 참가하였다. 제3회부터는 발해가 참가하고 또한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 제주 출신이 많아 탐라국이 일행으로 편성되었다.

이때의 규모는 후나단지리(舟タンジリ) 15기(基), 가마 60기(基)가 참여하고 고

10) 上田正昭(1997), 「四天王寺ワッソと難波の再生」, 上田正昭, 『アジアと海上の道-古代史の視座』, 明石書店, p. 210

11) 上田正昭(1997), 상계논문

12)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會報誌』 Vol.1(2004.1.) ~ Vol.16(2009.1.) (년간 3회 발행)

대의상을 입고 많은 악기를 연주하며 총 3600여 명의 화려한 대열이 오사카 시내의 타니마치긴(谷町筋)에서 시텐노지(四天王寺)까지 약 1.5km를 순행하였다. 2회 때부터는 후나단지리(舟タンジリ)에 타고 온 일본 측의 환영인물들이 순행 중도에서 오사카로 도래(渡来)하는 사절단을 맞이하는 의식이 추가되었다. 제4회 때는 관광자가 약 35만 명, 제7회에는 50만 명에 다다랐다.¹³⁾

3-2. 제2기(2002년 - 현재)

시텐노지왓소 마츠리는 지원기업인 간사이(関西)은행의 경영파산으로 2001년과 2002년에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會)를 설립하고 2001년 이후 중단된 시텐노지왓소를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2004년에 부활시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 개최현황은 (표-1) 과 같다.¹⁴⁾

(표-1)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ツソ)의 개최 현황

회수		개최일	개최장소	주최	순행자수	관객 수	테마
11	본제	2000년 11월3일	시텐노지와 타니마치긴 (谷町筋)	시텐노지왓소(四 天王寺ワツソ)실행 위원회	3,600명	43만 명	우정은 1400년 전부터
	미개최	2001년 11월3일		지원기업(関西은 행)경영파탄해산			
	미개최	2002년 11월3일					
12	본제	2003년 11월3일	나니와노미 야아토(難波 宮跡)공원	NPO법인 오사카왓소문화교 류협회 · 시텐노지왓소 (四天王寺ワツソ)실 행위원회		우친증지	
13	리틀 왓소	2004년 6월13일	만박공원(万 博公園) 내 국립민족학 박물관 주변		순행50명 악대50명	500명	
	본제	2004년 11월7일	나니와노미 야아토(難波 宮跡)공원		710명	45,000명	한류&판 류(阪流)
14	프레 이벤트	2005년 11월3일	오사카(大阪) 국제			1,500명	

13) 上田正昭(1997), 전개서, p.p 217-220

14)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會(2009), 四天王寺ワツソ 2003年 - 2008年までの記録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會 会報誌 Vol.1(2004.1.) ~ Vol.16(2009.1) 참조

			교류센터				
	본제	2005년 11월6일	나니와노미 야아토(難波 宮跡)공원			우천중지	미래에의 메시지
15	프레 이벤트	2006년 11월4일	“			30,000명	한류&관 류(阪流)
	본제	2006년 11월5일		1,000명	55,000명	한류&관 류(阪流)	
16	본제	2007년 11월4일	“		1,000명	52,000명	나니와노 궁 夢舞
17	본제	2008년 11월2일	“		1,000명	45,000명	산업의 원류
18	본제	2009년 11월1일	나니와노미 야아토(難波 宮跡)공원			우천중지	환경·고 대의지혜 배움

위 현황을 통하여, 2004년에 재현된 시텐노지왓소 마츠리는 재현 이전의 2000년의 11회 마츠리에 비하여 순행참가자와 관람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규모적인 면에서 뿐 만 아니라 행사의 운영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즉, 2004년에 개최된 제13회부터 타니마치긴(谷町筋)에서 시텐노지(四天王寺)까지의 거리 퍼레이드와 시텐노지(四天王寺)에서의 의식이 없어지고 모든 행사는 오사카성(大阪城) 근처의 사적(史蹟) 나니와노미야아토(難波宮跡)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등장인물의 범위도 고대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인물들로 축소하였다. 축소는 되었지만 3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됨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참가자가 재일계(在日系)학교 뿐만 아니라 일본학교 학생들의 참가가 현저히 증가되었고, 운영요원들도 약 80%정도가 일본인이었고, 협찬기업도 재일계(在日系)보다 일본기업의 참여가 많아졌다. 고대의 일한 교류의 테마는 유지되면서 재일(在日)의 마츠리로 부터 새로운 오사카의 마츠리로 전환된 것이다.¹⁵⁾ 즉 오사카의 시민축제로 부활되었다 할 수 있다.¹⁶⁾

재현된 시텐노지왓소는 13회(2004년), 14회(2005년), 15회(2006년)의 경우는 프레이벤트가 열리고 2007년 이후에는 본제(本祭)만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본제만 열리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제1기에 비하여 재정지원 규모도 열악하고 기부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경제정세의 악화로 오

15) 飯田剛司(2006), 전개논문, p.51

16) 팸플릿에도 시텐노지왓소의 소개를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교류를 우아하게 재현한 오사카의 마츠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四天王寺ワッソ広報資料, 2009)

사카부나 오사카시로부터의 조성금도 축소되고 2009년에는 조성금의 지원도 중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텐노지왓소는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행사의 운영은 기업과 단체, 개인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은 오히려 시텐노지왓소 마츠리가 시민참여형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2004년의 13회는 실질적인 부활의 첫해로 시텐노지왓소 프레이벤트인 리틀왓소(リトルワッソ)가 6월 13일에 만박공원(万博公園) 내 국립민족학박물관 주변에서 개최되었다. 리틀왓소는 시텐노지왓소의 미니 순행대(巡行隊)의 성격으로 가을의 본제(本祭)를 위한 의미 있는 PR이벤트이다. 백두학원의 풍물대를 선두로 일본의 고대 위인대열, 신라 대열, 큰 북 대열 등의 순행이 이루어졌다.¹⁷⁾

2005년의 14회에는 11월3일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 프레이벤트가 개최되었다. 난타공연과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궁녀 장금이」 뮤지컬, 한국의 전통무용, 요사코이 소란 등이 공연되었다.¹⁸⁾

2006년 제15회 때는 프레이벤트가 11월4일에 나니와노미야아토(難波宮跡)공원의 대극전(大極殿)에 마련된 특별스테이지에서 개최되었다. “퍼포먼스 스테이지”로서 문화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다. 간사이(関西)지역과 해외로부터 출연하는 국제색이 풍부한 사람들의 공연과 경연이 이루어졌다. 마침큰북 공연. 금강고등학교의 소란춤, 중국, 몽골, 티베트 세 나라의 화려한 무용 공연. 색소폰 연주, 한국무용아리랑, 한국의 불교의식무용의 일면인 큰북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타악기양상블-사물놀이-연주 등 다양하게 공연되었다.¹⁹⁾ 이러한 다양한 공연은 나니와노미야아토(難波宮) 자체가 이미 1400여 년 전부터 대륙과 조선으로 부터 다양한 문화전래의 장소라는 상징성에 부합한다. 또한 15회에는 조선왕조시대를 재현한 대열이 가담하였고 민족학교인 금강학원과 백두학원의 풍물대가 등장하였다. 2008년 제17회에는 한국의 공주 부여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와 교류를 하면서 충남 국악단 풍물놀이 팀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시텐노지왓소 마츠리의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은 “우정은 1400년전 부터”라는 슬로건아래 매년 테마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연의 많은 부분이 한국의 전통문화가 차지하고는 있지만 한국만이 아닌 중국, 몽골, 티베트 등의 공연을 함으로서 여러 민족의 교류와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2008년 11월 2일(일)에 사적 나니와노미야아토(難波宮跡)공원에서 개최된

17)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3, pp 4-5

18)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7, pp 3-5

19)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10, pp 3-5

시텐노지왓소의 프로그램과 일정은 (표-2)와 같다.²⁰⁾ 참가인원 규모는 퍼레이드 1,000명, 관광객 약 45,000명 그리고 핫빠 차림의 300여 명의 스텝 들이다.

(표-2) 2008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ッソ)의 프로그램과 일정

시간	프로그램	야외광장
12 : 30 ~ 13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닝 이벤트 한국전통무예(무예24기), 한국퓨전국악(춘향), 여인무악(女人舞樂) 	한류·관류(阪流) 음식점운영 10 : 30~17 : 00
13 : 10 ~ 15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 한국대통령 메시지 ▪ 일본내각총리대신 메시지 ▪ 순행 · 교류행사 일본 → 탐라·가야 → 수(중국) → 고구려 → 백제 → 신라 → 조선왕조 ▪ 성덕태자 평화선언 ▪ 마침큰북공연 	
15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 	

시텐노지왓소 마츠리의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오프닝이벤트로 여러 장르의 예능이 공연된다. 오프닝이벤트로 오사카 한국 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의전행사로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한국대통령과 일본총리대신의 메시지가 낭독되고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의 축사가 행하여진다.

셋째,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순행교류행사이다. 순행의 시작을 알리는 소라고동이 울리고 바다로부터 배가 도착함을 알리는 큰 북소리가 호응을 한다. 순행의 순서는 일본 → 탐라·가야 → 수(중국) → 고구려 → 백제 → 신라 → 조선왕조로 이어진다. 각 순행단 들은 모두 고증된 고대의상을 입고 중요인물 들은 7대의 후나단지리(舟タンジリ)에 타고 다른 순행자들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왓소(ワッソ), 왓소(ワッソ)”의 구호를 외치며 사물놀이와 다양한 춤 공연과 고증에 의하여 재현된 다양한 고대악기를 연주하며 순행한다.

20) 2008四天王寺ワッソ 홍보자료,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 会報誌 Vol.16, p.p 3-10

각 나라의 순행단에는 당시 일본에 높은 문화를 전해준 고대인과 역사인물, 즉, 탐라·가야의 고을나, 부을라 백제의 왕인박사, 아직기, 노리사치계,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소문, 신라의 김춘추, 김유신, 조선왕조의 세종대왕, 장영실 등 대부분의 한국 측 인물과 중국 측으로 당나라의 천축 등의 인물이 화려한 당시대 의상을 입고 또한 이름이 쓰인 깃발을 앞세워 순행을 한다.

일본 측의 환영인물들은 성덕태자를 위시하여 고대일본의 주요인물들이 순행을 하고 오사카로 들어오는 이들을 맞이한다. 순행 중에 도래(渡來)하는 사절단(使節團)과 일본 측의 마중하는 인물이 교류할 때 고대인의 인사인 료단사이하이(兩段再拜)²¹⁾라는 인사를 주고받는 환영의식을 하고 도래인들에게 상륙허가를 선언하는 문서를 읽는다.

이때 순행참가자는 50% 정도가 학생이다. 그러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한 오사카 지역의 상공인, 교수 등 다양한 계층과 단체의 사람들이 고대의상으로 갈아입고 순행에 참여한다.²²⁾ 순행의 참가는 시텐노지왓소의 회원은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나 주요인물인 성덕태자는 경제계나 학계의 대표를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순행참가자의 이러한 모습은 퍼레이드의 형태가 가미된 우리나라의 역사재현형축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학생들 위주의 참여가 많고, 많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는 오프닝 행사의 참여라는 전시행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학생이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텐노지왓소는 그만큼 더 의의가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시텐노지왓소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성덕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경제계나 학계의 유명한 인물을 섭외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는 시텐노지왓소에 참가하고 관심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시민참여형축제로서 시텐노지왓소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되리라 생각한다.

순행과 교류행사가 끝나면 성덕태자의 평화선언과 마침큰북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연과 순행 이외에 나니와노미야아토(難波宮) 공원 안에 한류·판류(阪流)광장을 조성하여 한국의 식문화와 오사카의 식문화를 테마별로 느낄 수

21) 료단사이하이(兩段再拜)는 고대인들이 천지자연과 조상을 숭배할 때 행하는 고대인의 인사 방법이다. 현재 신사에 참배하러 갈 때 양손을 두 번 부딪쳐서 손을 합치는 형식 이것은 재배라고 하고 그것을 가장 정중하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료단사이하이(兩段再拜)이다. 시대에 따라 무릎을 지면에 붙이는 방식과 선체로 행하는 방식의 2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http://www.wasso.net>.)

22) 2008년에는 주요한 학교와 단체로 오사카예술대학, 백두학원 등 18개 학교와 재일대한민국오사카지부분부, 오사카한국청년회,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2009), 四天王寺ワッソのご紹介, p.4)

있는 다채로운 부스를 설치하여 마츠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시 체험 판매 코너를 설치하여 화제의 한류스타의 판넬전시, 한국의 놀이체험, 고대의상체험 입어보기, 왓소게임, 소라고둥불기, 큰소리(왓소)지르기, 성덕태자다트게임 등을 실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텐노지왓소 마츠리의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은 “우정은 1400년 전부터”라는 슬로건아래 매년 새로운 테마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텐노지왓소에서 이러한 슬로건은 고대 국제교류의 중심무대 였던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라 생각한다. 즉 시텐노지왓소의 개최는 1400년 전부터 형성되고 있는 국제교류도시로 함축되는 오사카 문화의 역사적 유구성과 지속성을 현재에 이어나가야 할 가치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새로운 테마를 설정은 고대의 문화교류라는 역사적 사실을 현재에 재현하는 역사재현형 축제에서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칫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변화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표 슬로건의 제정과 새로운 테마를 부여하는 전략은 역사재현형축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4.시텐노지왓소의 운영전략

시텐노지왓소의 운영전략의 분석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 타니마치근(谷町筋)을 3600여명이 대순행하고 성대하게 개최되었던 제1기의 운영전략은 2000년말 지원기업이 파탄함으로서 중지되는 상황으로 해당 자료의 조사가 어려워 불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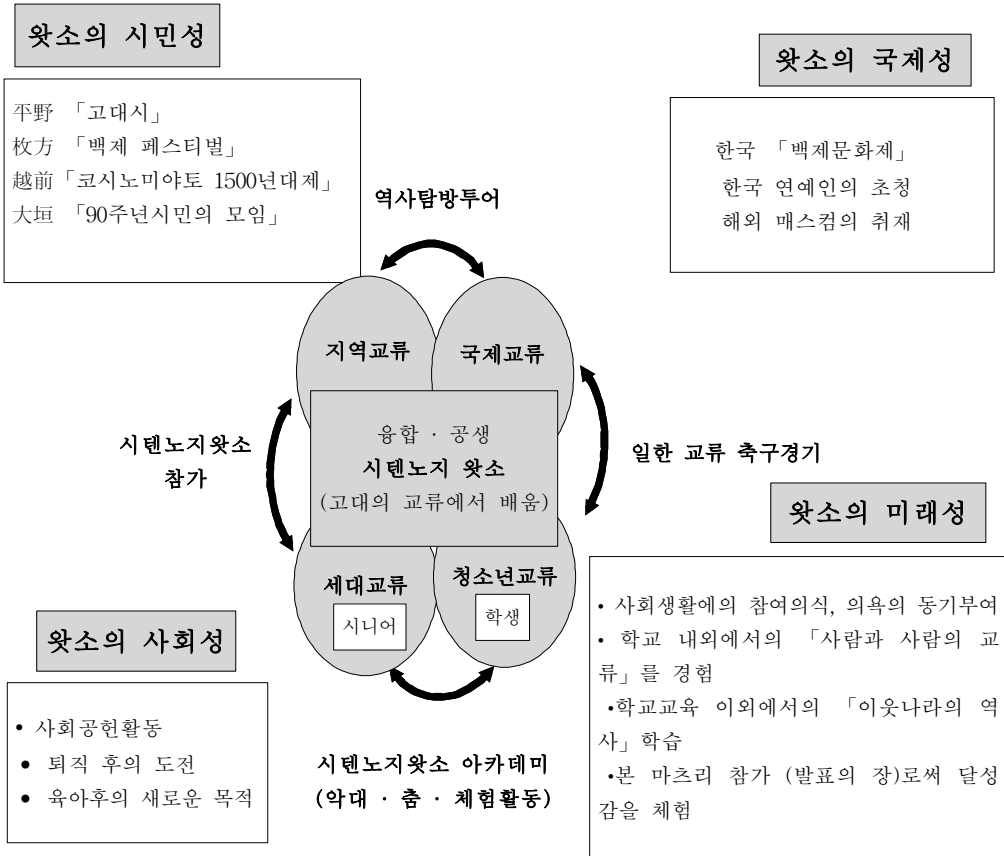
그러나 재개를 바라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왓소’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계속성 있는 오사카 독자의 축제로서 실제적으로 부활되는 2004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제2기의 운영전략은 주최단체인 NPO 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에서 발간되는 회보지(會報誌)²³⁾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시텐노지왓소의 운영전략의 분석은 2004년에 재생되어 현재에 이르는 제2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생된 시텐노지왓소는 축제의 방향성을 왓소의 국제성, 시민성, 사회성, 미래

23)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會報誌』Vol.1(2004.1.) ~ Vol.16(2009.1.) (년간 3회 발행)

성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대의 교류에서 시사점을 얻고 지역교류, 국제교류, 세대교류, 청소년 교류를 통한 서로의 융합과 공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생되어 부활된 시텐노지왓소가 표방하는 4가지 축은 (그림-1)과 같다.²⁴⁾

(그림-1) 시텐노지왓소의 4가지 축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는 시텐노지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오사카의 창조와 또한 한국을 시작으로 하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의 촉진에 기여하고 축제가 새로운 오사카의 문화재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텐노지왓소의 4가지 축을 2가지로 요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주요 운영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2009), 四天王寺ワツソのご紹介, p.6

25) 四天王寺ワツソについて(定款),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2004) 内部資料

4-1 지역교류 · 국제교류

지역교류의 형태는 고대교류관련 학회참가, 역사탐방투어와 마츠리의 참여 등이다. 역사탐방투어는 일본 속에 남아있는 고대의 도래문화(渡來文化)의 사적(史蹟)으로 주로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역사문화가 있는 현장 탐방이다. 일본 국내의 나라(奈良)나 이스카(飛鳥)지역 등의 탐방과 일본 국외로는 도래인(渡來人)의 루트를 방문하여 고대국가교류를 실제 체험하고자하는 한국사 유적 탐방 등이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참여와 안내를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마츠리의 참가는 오사카 시내에서 벌어지는 마츠리와 오사카 인근 지역의 마츠리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전래와 관련된 축제에 참여한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오사카의 한여름 마츠리인 “오사카킹(オーサカキング) 마츠리 참가 26)

오사카킹마츠리는 오사카에 활기를 불어일으키기 위하여 2004년 마이니찌방송(毎日放送)이 주최가 되어 시작되었다. 매년 8월5일(토)에 오사카성의 공원 광장에서 열린다. 개최기간중 약 47만 여명의 사람들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마츠리의 모습을 안내해준다. 오사카라는 테마로 오사카의 지명에 남아있는 도래인이 등장하고 인물은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분장을 한다. 이 마츠리에 시텐노지왓소의 순행팀도 참가한다. 민족학교인 백두학원이나 건국소학교 등의 풍물대의 연주를 선두로 이퇴계, 세종대왕 등 우리 측 인물과 일본 측의 조선왕조와 선린외교를 주장한 일본의 아매노모리(雨森芳洲)등이 참가한다.

4-1-2 원월드페스티벌(ワン・ワールド・フェスティバル) 참가27)

“21세기 더불어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테마를 지닌 페스티벌로 오사카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다. NPO, 정부기관, 국제기관, 기업 등 122개의 단체가 참가하며 2월 3일(토)과 4일(일)의 2일간 개최하는데 내방객이 8000여명이다. 이곳에 부스를 설치하여 시텐노지왓소의 활동기록을 상영하고 왓소의 고대의상을 착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한다.

4-1-3. 히라가다(枚方), 쿠다라(百濟)페스티벌 참가28)

26) NPO法人大阪ワツツ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 6, p4, Vol. 9. p.2 등

27) NPO法人大阪ワツツ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 8 p.3, Vol.11. p.7 등

28) NPO法人大阪ワツツ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11, p.5 등

시텐노지왓소는 특별사적(特別史蹟)인 백제사적(百濟史蹟)에서 백제왕족의 사업을 널리 전달하기 위한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또한 히라가다(枚方), 쿠다라(百濟)의 모임의 여러 회원들도 시텐노지왓소 본제(本祭)의 광고와 홍보를 위하여 히라가다(枚方) 시청을 방문하여 시청 앞에서 미니퍼레이드를 실시하기도 한다.

4-1-4. 한국의 역사재현형 축제에 참가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의 전래와 교류와 관련된 축제에 참가한다. 서울의 송파구에서 거행되는 한성백제문화제, 영암의 왕인박사축제에 참가하였다.²⁹⁾ 마츠리의 교류로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와 교류협정을 조인하고(2007.6.14,³⁰⁾ 제53회 백제문화제에는 후나단지리(舟タンジリ)를 끌고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³¹⁾

이러한 활동이외에도 지역의 각종행사의 선두에 시텐노지왓소의 고대의상과 후나단지리(舟タンジリ)로 편성된 도래인단(渡來人團)을 등장시키고³²⁾, NHK의 고대드라마에 왓소의 의상과 가마, 소도구 등을 빌려주기도 하고³³⁾, 중고등학교의 취주악부의 정기연주회에서 왓소에서 연습한 악기 등을 활용하고, 일한문화와 관광교류의 행사에 시텐노지왓소의 “큰북(큰북 직경110cm, 중량160kg)의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텐노지왓소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알린다.

이리하여 일찍부터 시텐노지왓소는 간사이(関西)지역에서 문화 활동에 충실하고 문화권의 일체감을 배양하기위하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간사이겐키문화권(関西元氣文化圏)의 참가사업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³⁴⁾

역사재현형축제인 시텐노지왓소는 매년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문화의 날) 하루 동안 열리지만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교류와 국제교류를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일 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이는 시텐노지왓소는 오사카에서 하루 동안 열리는 행사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전해오고 있는 역사이고 현재에 살리고 유지하여야하는 가치 있는 교훈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4-2 세대교류, 청소년교류

29)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7, p.6 등

30)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12, p.2

31)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16, p.13

32)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11, p.7

33)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4 p.14

34)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6 p.5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는 시텐노지왓소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교육에도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³⁵⁾ 이의 실천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국제적인 스포츠교류행사와 시텐노지왓소아카데미에 참여시킨다.

스포츠교류행사로 대표적인 것은 문부과학성위촉사업으로, 일한공동미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소년축구대회를 공동개최한다.(일한우호친선페스티벌) 또한 소년 축구대회와 스모교류행사에서 일본, 한국, 몽고의 소년 축구와 스모 경기의 개최식에 왓소의 고대위인들이 고대의상을 입고 참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활동으로 “나가자 미래로, 같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일한우정 년2005(日韓友情 年2005)”의 이벤트로 시텐노지왓소가 인정되기도 하였다.³⁶⁾ 즉, 시텐노지왓소는 단순 오사카 지역이 아니라 일본 국가의 국제교류 정책수행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프로그램 이외에 시텐노지왓소 순행에서 인기가 있는 악대, 무희의 연습 프로그램인 시텐노지왓소아카데미에 많은 청소년의 참가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킨다. 모집기간은 매년 6월초에서 8월까지이고 연습기간은 매년 9월부터 개막일 전까지로 시텐노지왓소에 참가를 위한 악기의 연주와 춤을 연습하며 미리 배우고 익힌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①사회생활에의 참여의식과 의욕의 동기부여 ②학교 내외에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의 경험 ③학교교육이외의 인접국가 들의 역사 학습 ④마츠리의 참가(발표의 장)로 성취감의 체험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³⁷⁾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는 시텐노지왓소를 「융합·공생」을 콘셉트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오사카발의 축제로서 이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 효과로 첫째, 시텐노지왓소가 시민축제로 정착함으로써 국제교류의 현관이었던 오사카에 어울리게 지역주민인 일본인과 재일코리안, 외국인들이 융합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시텐노지왓소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오사카와 동아시아의 교류사를 재확인하고 현대의 국제교류의 본연의 모습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은 제1기에 비하여 재정지원 규모도 열악하고 기부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근의 경제정세의 악화로 2009년부터 오사카부나 오사카시로부터의 조성금이 중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텐노지왓소는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행사의 운영은 기업과 단체, 개인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순행참가자

35) 四天王寺ワッソについて(定款),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2004) 内部資料

36)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5, p.5

37) 四天王寺ワッソについて(定款),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2004) 内部資料

(당일 고대의상을 입고 순행참가), 악대참가자(당일 고대악기를 연주하는 악대에 참가), 운영스텝(당일 경비, 유도, 기획보조 등의 도움) 등의 대부분을 자원 봉사자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여건은 시텐노지왓소가 시민참여형으로 성장하며 지역의 활성화에도 공헌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것은 NPO법인오사카왓소문화교류협회의 ①고대의 국제교류를 재현하며 현대에 어울리는 국제문화교류의 촉진에 기여한다. ②시텐노지왓소는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의 손에 의해 1990년에 만들어졌다. 고대 동아시아로부터의 문화의 전승에 의해 발전된 오사카에서 양자가 올바른 역사관으로 밝게 상호협력하며 공생하는 모습을 마츠리의 개최를 통하여 알린다. ③재일코리아인 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며 젊은이나 어린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관해 인식이 불명확하다. 시텐노지왓소마츠리에서 그러한 참가자나 관람자에게 그것을 재인식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④이웃과의 사립이나 지역주최 행사에의 참여가 웬지 번잡스럽고 성가시게 생각하는 현상은 도시형 생활에 현저하다. 또한 정보기기의 발전으로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도 유사체험을 맞볼 수 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시텐노지왓소는 누구라도 참가가 가능한 시민의 축제로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⑤미래를 짚어질 청소년의 참가를 촉진하고 참가하기 위한 연습프로그램을 통하여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교류의 소중함을 배우는 장을 제공한다는 사업의 목적³⁸⁾에도 부합된다.

시텐노지왓소에서의 세대교류, 청소년교류의 다양한 사업은 마츠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일 뿐 만 아니라 마츠리 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마츠리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

5. 시텐노지왓소에 나타나는 在日코리아인文化의 役割

시텐노지왓소는 일한연구자와 교원이 10년에 걸쳐 완성된 일한역사공동교재인 『일한교류의 역사』라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과서에 개제되어³⁹⁾ 학교의 정규수업에서도 학습되고 알려지고 있다. 시텐노지왓소에서 거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한국의 역사문화와 관련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

38) 四天王寺ワッソについて(定款),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2004) 内部資料

39) NPO法人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會 会報誌 Vol.1. p.4

국민족문화적인 성격을 가진 시텐노지왓소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행되고 또한 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에도 개재되어 정규수업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시텐노지왓소는 오사카에서 한국의 문화로서 재일한국인만의 민족마츠리가 아니라 오사카의 문화로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왓소를 통하여 보이는 재일코리안문화의 역할은 재일 한국인들에는 소수자 문화의 폐쇄성으로부터 공적 장소에서의 민족문화를 공연하는 것을 통하여 정체성 확인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은 일본문화와 차별성을 가지며 다문화 공생의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한 축으로 한국문화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인들도 고대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을 이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마츠리를 통하여 오사카 자체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오사카 사람들은 일상 세계 안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그것은 오사카 이미지를 국제적인 도시로의 질적인 변화를 야기 시킨다. 문화적 균질성을 전제로 다양한 선택가능성 속에서 ‘차이’로서 민족문화가 재일(在日) 한국인 자신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것은 2006년 3월에 일본총무성에서 발표한 다문화 공생 추진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더욱 가속을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다문화 공생 추진프로그램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정주화라는 현실에 대해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행정에서의 다언어 서비스, 학습·교육 지원, 생활지원, 공생의 지역 만들기 등의 항목이 거행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몇 개의 지방자치체는 이미 새롭게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공생 프로젝트로 생활 교육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⁴¹⁾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전개되는 많은 재일코리안 민족축제는 다민족·다문화 공생의 목표를 내세우며 재일(在日) 문화의 일본사회에서의 공공화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족마츠리가 생기면서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에 의해 재일문화는 일본사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의 활동은 금일의 일본문화 안에 독특한 매력 있는 영역으로 넓게 인정받고 있다⁴²⁾. 시텐노지왓소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츠리를 통하여 재일한국인은 소수자 문화의 폐쇄성으로부터 공적 장소에서의 민족문화를 공연하는 것으로 적극적 전환되

40) 飯田剛司(2006), 전개논문, p. 53

41) <http://www.soumu.go.jp>

42) 飯田剛司(2006), 상개논문, p. 52

고, 일본인들은 이웃으로서의 외국인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지금까지 이웃사촌은 일본인이라는 명백한 전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며 다민족 다문화공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공생에 대하여 다문화 불관용의 모습도 21세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도 다민족 상황을 받아들여 다문화 공생의 운동과 시책이 전개되는 한편 중국·한국국민의 반일운동에 대하여 반감이 증폭되는 모습과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 또한 일어나고 있다.⁴³⁾ 이러한 다문화공생과 다문화불관용이라는 두 가지 조류의 흐름은 일본 사회 속에서 제일코리아문화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6. 맺음말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ツソ) 마츠리는 제일오사카 한국인의 축제로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오사카 시민의 축제로 그 성격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시민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텐노지왓소는 축제 방향성을 왓소의 국제성, 시민성, 사회성, 미래성의 4가지로 선정하였다.

고대의 오사카가 국제교류의 중심 무대였다는 것에 시사점을 얻어 시텐노지왓소의 목적을 지역교류, 국제교류, 세대교류, 청소년 교류를 통한 서로의 융합과 공생으로 하고 있다. 시텐노지왓소에서의 세대교류, 청소년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마츠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일 뿐 만 아니라 마츠리 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마츠리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텐노지왓소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미리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일본 지역 뿐 만 아니라 한국의 관련 있는 축제와도 교류를 하고, 또한 마츠리의 진행을 시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시텐노지왓소 마츠리의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은 “우정은 1400년전부터”라는 슬로건아래 매년 테마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텐노지왓소에서 이러한 슬로건은 고대 국제교류의 중심무대였던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라 생각한다. 즉 시텐노지왓소의 개최는 1400년 전부터 형성되고 있는 국제교류도시로 함축

43) 飯田剛司(2007), 전개논문, p.p 44-46

되는 오사카 문화의 역사적 유구성과 지속성을 현재에 이어나가야 할 가치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새로운 테마의 설정은 고대의 문화교류라는 역사적 사실을 현재에 재현하는 역사재현형 축제에서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칫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변화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대표 슬로건의 제정과 새로운 테마를 부여하는 전략은 역사재현형 축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시텐노지왓소의 메인행사인 순행의 경우 참가자의 50% 정도가 학생이지만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한 오사카 지역의 상공인, 교수 등 다양한 계층과 단체의 사람들이 고대의상으로 갈아입고 순행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전략 또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매년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문화의 날) 하루 동안 열리는 역사재현형 축제인 시텐노지왓소를 알리기 위하여 지역내외의 각종 행사에 시텐노지왓소 의상과 소품 등을 착용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빌려주는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일 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또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과서에 개제되어 학교의 정규수업에서도 학습되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시텐노지왓소는 오사카에서 하루 동안 열리는 행사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전해오고 있는 역사이고 현재에 살리고 유지하여야 하는 가치 있는 교훈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노력이라 생각한다.

시텐노지왓소 마츠리에 나타나는 재일코리안문화는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소수자 문화의 폐쇄성으로부터 공적 장소에서 민족문화를 공연하는 것을 통하여 정체성 확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도 고대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을 이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오사카는 단순히 민족 마츠리의 무대인 것만이 아니라, 이 마츠리를 통하여 오사카 자체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오사카 사람들은 일상 세계 안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그것은 오사카 이미지를 국제적인 도시로의 질적인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역사재현형 축제는 한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대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되살려 현재인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간직하게 하고 현대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시텐노지왓소는 긍정적이다.

일본에서 재일코리안문화의 역할과 변화양상을 볼 수 있는 재일민족마츠리에

대한 연구는 시텐노지왓소(四天王寺ワツソ) 뿐만 아니라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 원코리아페스티벌(ワン코리아フェスティバル)과 한신(阪神)을 중심으로 탄생되는 각종 마당(マダン)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민족마츠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될 때 그 현상은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긴다.

【参考文献】

- 김현선(2007), 「재일코리안의 축제와 민족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6호, p.p 457-489
- 飯田剛司(2003),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民族祭り—民族と宗教と社会学」 世界思想社
- _____ (2004), 「在日コリアンの祭り形成と地域共生への考察」 飯田剛司編 『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 文部省科学研究費国際学術研究報告書.
- _____ (2006), 「在日コリアンと大阪文化—民族祭りの展開、関西社会学会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 5号、p.p 43-56
- _____ (2007),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ゆくえ—民族祭り視点から」、芦名定道, 編著 『多元的世界における寛容と公共性』, 晃洋書房 p.p 39-48
- 片岡千代子(2006), 「京都東九条マダンの中心的担い手についての考察」, 『東アジア研究45』, 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 p.p 3-24
- 藤井幸之助(2006), 「民族祭り、マダンの系譜—見る者と見られる者の関係性、在日朝鮮人の出会いの場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実現へむけて—」、『大阪経済法科大学アジア研究所発表会』 大阪、7月
- 上田正昭(1997), 「四天王寺ワツソと難波の再生」、上田正昭, 『アジアと海上の道—古代史の視座』, 明石書店, p.210
- 四天王寺ワツソについて(定款)、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2004) 内部資料
-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 『会報誌』 Vol.1(2004.1.)~Vol.16(2009.1)(년간 3회 발행)
-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2006), 四天王寺ワツソガイドブック
-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2009), 四天王寺ワツソ 2003年 - 2008年までの記録
- NPO法人大阪ワツソ文化交流協会(2009), 四天王寺ワツソ紹介 弘報資料
- <http://www.mindan.org>
- <http://www.soumu.go.jp>
- <http://www.wasso.net>

要 旨

四天王寺ワッソ祭りは在大阪コリアンの祭りとして始まったが、現在は大阪市民の祭りとしての性格が変わりつつある。四天王寺ワッソ祭りはこのような市民祭りとして生まれ変わるために、ワッソの国際性、市民性、社会性、未来性の4つの方向性を掲げた。また、古代の交流から示唆点を得り、地域交流、国際交流、世代交流、青少年交流を通して、お互いの融合と共生を目指している。こういった目標の円滑な運営のために、四天王寺ワッソアカデミを設置し、ワッソの内容についてあらかじめ習得できる場を作り、日本の地域だけではなく韓国の関連祭りとも交流し、また、お祭りの進行を市民のボランティアを中心にしている。

在日韓国人は、四天王寺ワッソ祭りをもって少数者文化の閉鎖性から脱し、公的の場所で民族文化を公演することで、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確認を試みている。また、日本人も古代衣装を着てパレードに参加することを異国文化に接する機会と思い、大阪は単に民族祭りの舞台であることにとどまらず、この祭りを通して大阪そのものが変容していくと思っている。つまり、大阪の人々は日常生活のなかに異なる文化を持つ人々がいること、そして、それが重要な価値もつことを自然に認識することによって、大阪のイメージを多文化共生の国際的な都市としての質的な変化を齎している。

キーワード：四天王寺ワッソ、在大阪コリアン、地域交流、国際交流、世代交流、青少年交流、融合と共生、多文化共生

투 고 : 2009. 11. 30
1차 심사 : 2009. 12. 12
2차 심사 : 2010. 01. 09